

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·인프라 동향 보고(11.28)

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분	내용	비고
은행간 환율	110.50 Tk/USD (전주대비 0.50▽)	'23.11.28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3.10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7.35% (전월대비 0.94△)	'23.10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+8.0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Nov 21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8, 2023
1 Month	0.0 bp	8.505 % Oct 28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8, 2023
6 Months	0.0 bp	8.505 % May 28, 2023	No change	8.505 % Nov 28, 2023
1 Year	+8.0 bp	8.365 % Dec 18, 2022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8.505%
Last update 28 Nov 2023 0:15 GMT+0

□ 외환보유액, 19.52b달러로 하락

-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전주 같은 날 기록한 196억 달러에서 2023년 11월 23일 19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.
- 중앙은행은 달러 위기 해소를 위해 외환보유액에 약 8천만 달러를 추가 예치하였으나, 여전한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해 타카는 USD 대비 지속 가치 하락중임. 현재 달러당 공식 환율은 Tk 111이지만,

시장에서의 달러당 환율은 Tk 120을 넘어섬.

- 국제통화기금(IMF) 내부 기준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11월 22일 지급 준비금은 195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날 340억9000만 달러 대비해서는 줄어든 상태.
-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국내 예산지출 증가로 막대한 수입 대금을 부담.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야기한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과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 바 있음.
- 이러한 대외적, 내부적 이슈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지난해부터 **막대한 달러 부족에 직면**. 복합적 이슈 발생 전인 2021년 8월 방글라데시의 외환 보유고는 48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.

□ 은행, 환전소에서 외화 송금된 USD를 Tk122.25에 구입

- 여러 은행들이 외환 거래소로부터 122.25 Tk로 송금을 받는 등, 최근 달러 송금 환율이 다시 상승.
- 수입업체들이 은행에 신용장(LC)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은행은 110.50Tk에 LC를 개설할 의사가 없으며, 수입업체는 124.50~125Tk에 LC를 개설이 필요함을 주장. 상당수 은행들이 이 금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2022-23 회계연도에 BB(중앙은행)는 LC 개설을 위해 상업은행에 140억 달러 이상의 판매를 촉진하여 지속적인 환율 역동성의 복잡성을 야기함.

2. 건설·인프라 시장 동향

□ 방글라데시, 2년연속 사상 최대 인력 수출

- 방글라데시는 2년 연속 노동수출 100만 명을 돌파하며 노동이주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. 2023년 10월 기준 약 110만 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해외 일자리를 확보.

- 방글라데시 이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10월까지 전체 해외 일자리의 37%를 차지, 말레이시아, 오만, UAE, 싱가포르, 카타르, 쿠웨이트, 요르단 등이 뒤를 이음.

□ 미사용 JICA 기금(지하철 사업, Tk2,460cr) 반환

- 외국 지원 사업의 만성적인 지연은 수익 부진과 예비비 감소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. 최초의 지하철 사업은 금년 회계 연도에 배정된 일본 대여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.
- 다카 대중교통 유한회사(DMTCL)는 토지 취득 및 대중교통 1호선 사업 입찰 승인 실패로 인해 2,460크로어의 미활용 자금을 반환하기로 결정.
- MRT-1 프로젝트 책임자는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토지 취득의 복잡성과 대출 기관의 조달 제안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할당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.
- 지하 및 고가 철도 31.24km로 구성된 Tk52,561크로어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19년에 승인. 그러나 건설 진척도가 크게 뒤처져 4년 만에 겨우 3.47%의 완공률을 기록.
- DMTCL은 지하 구간과 정거장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4가지 패키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음. 이번 회계연도에 프로젝트에 3,910.50크로어가 할당, 이 중 2,700크로어는 외국 자금.
- 다만, FY24의 첫 4개월 동안 Tk39.90크로어만 지출되었는데, 이는 할당액의 1.02%에 불과. JICA의 4개 조달 패키지에 대한 승인도 지연.

□ 정부, 폐기물에서 전력 생산(WtE)을 위한 공장 설립

- 폐기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브라만바리아에 발전소 건립 예정, 전력비용(KwH)은 21.16크로어 추정.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는 11 메가와트의 전기 생산을 목표로 함.
- 전기를 관세율로 구매한다면, 정부는 약 4,068크로어를 발전소에 25년

동안 킬로와트시(KWh)당 21.105크로어의 요금으로 지불해야 함. 공공 구매 내각위원회는 2023년 11월 22일 AHM 무스타파 카말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회의에서 본 사업을 승인.

□ 부리마리 육상항 확장

- 정부는 무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리마리 육상항 확장 계획에 착수. 이 조치는 항구의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60.89에이커를 인수하는 것으로 시작.
- RAJUK은 이미 '육상항 확장 및 여객터미널 개발'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에 착수한 상태.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육상항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시킬 것을 약속.
- 이 사업은 인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수출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. 인프라가 확충되면 항만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방글라데시, 인도 등 주변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.

□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 태양광 투자 관심

- Hiru Hartantu Subolo 방글라데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2023년 11월 22일 Nasrul Hamid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면담. 송전, 서브스테이션, 오프쇼어 풍력 및 전력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논의.
- 인도네시아 대사는 방글라데시의 태양광 발전 분야에 투자하려는 자국의 관심을 표명. 대사는 "1차로 인도네시아는 10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점차 500MW까지 늘릴 수 있다"고 언급. 인도네시아 국영 기관인 페르타미나 요한 K. 노브리안의 프로젝트 개발 책임자인 Juhan K.이 자리에 배석

□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

- 싱가포르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시설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재생 에너지 금융 구축을 위해 방글라데시의 정책 및

규제 장벽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.

- 본 보고서는, 비재무적 장벽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.
- 여기서 말하는 비재무적 장벽은 오랜 허가 절차, 토지 취득의 어려움, 현지 공급망 부족,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 요건 등을 일컫음.
-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프로젝트 리스크, 일정,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차입을 더 비싸게 만듦.
- 방글라데시에 대해 확인된 특정 장벽은 다음과 같음:
 - 프로젝트 비용을 높이는 낙후된 장비와 부족한 지역 공급망
 - 전력 Offtaker의 신용도 하락
 - 투자를 어렵게 만든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
-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:
 -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도별 조치 계획수립
 - 국제개발기관의 지원과 RE금융이 가능하도록 보조금/보조금 지원

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□ 방글라데시, '폭력' 단속으로 수천명 체포

- 방글라데시가 총선을 앞두고 '경쟁을 없애기 위해' 야당에 대한 대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나서 활동가 1만명 가까이를 체포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'경쟁을 없애기 위한'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(HRW)가 2023년 11월 27일 밝힘.
- 체포된 수천 명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민당(BNP) 소속의 많은 수가 충격적인 숫자로 기소. BNP에 따르면 회원 500만명 중 약 절반이 "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에 직면해 있다"고 HRW는 말함. 한 활동가는

HRW에 "체포자들은 노인층에서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남겨 두지 않고 있다"고 말함. 인권단체는 교도소 수용 인원이 현재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.

- HRW는 "방글라데시 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진압하고 경쟁을 없애기 위한 명백한 시도로 정치적 야권에 대한 대량 체포를 단행하고 있다"고 밝힘.
- 뉴욕에 본부를 둔 HRW는 "폭력적인 독재적 단속"이라며 지난 10월 시위가 확대된 이후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사망, 5,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쳤다고 밝힘.

□ 국경수비대 (BGB) 소대 주요거점 통제중

-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(BGB)는 자마트 BNP가 소집한 48시간(2일 쉼기, 1일 휴무 지속)에 걸친 전국적인 도로, 철도, 수로 봉쇄가 진행됨에 따라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총 230개의 소대를 배치. 11월 27일 오전부터 다카와 인접 지역에 28개의 BGB 소대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.
- 정치적인 과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430개의 RAB 부대와 함께 동일한 수의 BGB 소대가 전국에 배치.